

교육의 기적

박 동섭: littleegan@gmail.com

‘가르친다’라는 행위의 본질에 관해서 가장 통찰이 풍부한 말을 남긴 것은 다름 아닌 프랑스의 정신분석가 라캉이다. 라캉은 ‘가르치는 것’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가르친다는 것은 매우 역동적인 것으로 나는 지금 교탁 이 쪽에 서 있습니다만 이 장소에 서게 하면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 는 누구라도 일단은 그 나름의 역할은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무지가 이유가 되어 부적격 판정을 받을 교사는 없습니다. 사람은 알고 있는 자의 입장에 서게 되는 동안은 늘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가르치는 자로서의 입장에 서는 한 그 사람이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他者と死者-ラカンによるレヴィナス).

“사람은 알고 있는 자의 입장에 서 있는 동안은 늘 충분히 알고 있다.”

이 말은 ‘가르친다’는 것에 관해서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는 명제 중에서 가장 도발적이고 가장 생산적인 명제 중의 하나라고 나는 생각한다. 따라서 가르치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그리고 삼아야 할 모든 사람은 이 명제를 정면으로 받아들여서 자기 나름의 해석을 내릴 의무가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도 횡수로 따지자면 15년 넘게 ‘교탁의 이쪽’에 서 있다. 그리고 그 동안의 나의 교사로서의 경험은 이 라캉의 말에 절대적으로 공감할 것을 가르쳐 준다.

‘교탁의 이쪽’에 있는 사람은 ‘교탁의 이쪽’ 있다는 사실 만으로 이미 ‘교사’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교사는 특별히 유용한 실리적인 지식과 정보와 기능을 갖고 있어서 그것을 학생과 제자에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인 것이 아니다.

이것이 가르치는 것의 역설이다.

교사는 “이 사람은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를 알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앞에 서는 한 이미 충분히 교사로서 기능한다. 그/그녀에게 배우는 사람들은 ‘그가 가르치는 것 이상의 것, 그/그녀가 가르치지 않은 것’을 그로부터 배운다.

이 ‘가르치는 것의 역설’은 라캉과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교사들이 경험적으로는 은연중에 실감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야기의 조리 상으로는 좀처럼 그 역설을 공언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아무리 지식과 기능이 결여되어 있어도 ‘교탁의 이쪽’에서 한 나는 교사로서 충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커밍아웃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라도 교사가 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성난 목소리가 금방이라도 들릴 것 같다.

아니 실제로 말한 대로이다.

누구라도 교사가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말로 중요한 제도는 ‘누구라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예외적으로 탁월한 자질을 가진 사람만이 사회제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는 방침으로 사회제도가 설계되었다면 먼 옛날에 인류는 멸망하였을 것이다.

이전에 유학시절 필드워크 관계로 우연히 알게 된 스모(일본식 씨름) 장사였던 분으로부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는 “스모라는 것은 어느 정도 신체가 크면 누구라도 프로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놀랄 만한 사실을 가르쳐 주었다.

“축구와 야구라면 생득적으로 높은 운동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프로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스모는 다릅니다. 생득적 자질이 보통이라고 하더라도 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당치도 않게 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스모의 신체기법은 합리적으로 프로그램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파악하는데 상당히 곤혹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참 뒤에야 비로소 그의 말을 깊게 납득하게 되었다.

확실히 말한 대로이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곤란하다.

만약 십만 명에 한 명 정도라는 예외적으로 훌륭한 신체능력을 가진 자 밖에 스모 장사가 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1500년 동안 계속될 리가 만무하였기 때문이다.

스모가 예외적 천재밖에 습득할 수 없는 특수한 기능이었다면 한 세대만이라도 ‘예외적으로 탁월한 신체능력의 소유주’가 스모의 길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시점에서 스모의 전통은 끝나버리고 말 것이다.

스모에서 최우선해야 하는 것은 ‘설령 보통 사람의 신체능력 밖에 갖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그 잠재성을 폭발적으로 개화시킬 수 있는 능력개발 프로그램’을 다음 세대에 전승하는 것이다.

어느 시대에 전설적인 장사가 한명 출현해서 그 사람이 인간의 신체는 ‘이만큼이나’ 가능하

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끝’이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에서 이야기는 간단하다. 그러나 스모는 한 사람의 천재의 퍼포먼스를 신화적으로 구전하기 보다는 장사양성 프로그램을 존속시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였다. 그것은 대중예능이기도 하고 격투기이기도 하고 국민적인 구경거리인 복합적인 이 기예(技藝)가 일본열도로부터 결코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강렬한 사명감을 장사들은 꿰뚫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 자신은 지금 현재 왜 스모가 세대를 넘어서서 계승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 이유를 여러분에게 설득력 있는 어법으로서 말할 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다. 하지만 ‘결코 없어져서는 안 되는 제도에 관해서는 「그 입장에 서게 되면 누구라도 그것을 담당할 자격이 있다」는 식으로 구조화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류학적 지견에는 깊게 동의한다.

학교교육도 또한 그러한 의미에서 ‘결코 사라져서는 안 되는 제도’이다. 학교는 그것 없이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살아남을 수 없는 제도이다.

학교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집단을 상상해 보면 알 것이다. 거기에는 어린 구성원들은 성숙에 이르는 길을 배우지 않고 유흥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결코 야단맞지 않는다. 아이들은 살기 위한 기본적인 기술도 지혜도 배우지 않은 채로 무능한 어른이 되고 그렇게 되면 언젠가 아사하고 말든지 다른 공격적인 부족에 습격을 받아서 노예가 되든지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다.

배움의 시스템을 갖지 않는 집단은 존속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학교교육에 관해서는 ‘누구라도 일정한 절차를 익히고만 있으면 가르치는 일은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제도가 설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예외적으로 지적이거나 통찰력이 있거나 공감성이 높은 사람이 아니면 그러한 일은 하지 못한다는 룰이 정해져 있으면 인류는 벌써 절멸하였을 것이다.

쥘베른의 『15소년 표류기』에 그려진 소년들은 무인도에 표착한 후 살 곳과 먹을 것을 확보하고 나서 바로 학교를 만들었다. 어린 아이들이 무인도 생활에 익숙해져서 지적인 활동의 수행을 잇는 것을 연장자인 소년들이 염려하였기 때문이다.

교사가 된 소년과 학생이 된 소년들의 이때의 연령차는 불과 5살이었다.

14세의 소년이 9세의 소년에 대해 압도적인 지적 우위를 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 ‘학교’는 훌륭하게도 교육적으로 기능하였다. ‘교탁의 이쪽’과 ‘저쪽’ 사이에는 넘어설 수 없는 지적위계차가 있다는 신뢰가 있는 한 거기서는 교육이 가능하다. 이것이 본래의 ‘상식’이다.

하지만 교사는 그 ‘상식’을 알고 있지만 입에 담는 것을 삼간다. 그것을 비겁하다든지 음험하다고 책망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교사라는 일은 실은 누구라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일단은 비밀로 해두는 것’도 포함해서 교육은 제도적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의 과거를 돌이켜 보면 내가 공립 초·중학교를 다닐 때 그리고 대학도 포함해서 고등학교

를 다닐 때 교사들 중에는 ‘지금으로는 절대로 채용되지 않을’ 유형의 교사가 적잖이 있었다. 그들 중에는 너무나 교과 내용을 이해 못하는 교사도 있었고 폭력을 상시 휘둘러 대는 교사도 있었다.

전국 820만 관객을 모았던 광경택 감독의 『친구』라는 영화에 보면 다음과 같은 장면이 나온다.

선생:너희 아버지 뭐하시노?

학생1:회사다니시는데요

선생:회사? 그래 이 빌어먹을놈아;; 너희 아버지는 회사에서 직장상사한테 굽신거리면서 니 공부시키는데 니는 니는 시험을 30점도 못받나?

이리와!

빨리안와?

들어가!

다음.. 아버지 뭐하시노 말해라 뭐하시노;

동수:장의사입니다

선생:장의사? 그래 이놈아 너희 아버지는 죽은 사람 여명하며 공부시키는데 공부를 이끄라지

다음! 아버지 머하시노;; 말해라~ 아버지 머하시노!!

준석:건달입니다;

선생:하~하~ 이새끼 이새끼 이새끼 일로와 이새끼 좋겠다 좋겠어 새끼 너거 아버지 건달이라

선생:(이성을 잃은 듯) 원투 펀치로....

이런 폭력 교사들은 내가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말 그대로 비밀비재하였다.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도 사정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읽히는 것으로 수업시간을 때우려는 교수도 있었고, 수업준비를 전혀 해오지 않아서 매시간 해매는 교수, 30년 넘게 사용한 너털너털한 공책을 교재로 사용하는 교수 그리고 자기 사정에 따라 휴강을 밥 먹듯이 일삼는 교수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우리들의 학력이 낮았던 것은 아니다. 우리들은 그 당시 지금의 아이들보다 훨씬 열심히 수업을 들었다. 물론 학력도 훨씬 높았다고 생각한다.

왜 그랬는가 하면 우리들은 ‘교탁의 저쪽에 있는 사람’은 그것만으로도 이미 가르칠 자격이 있다는 물을 신체화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차이는 그것뿐이다. 그것이 교사들에게 있어서도 부모에게 있어서도 학생들에게 있어서도 ‘상식’이었기 때문이다.

우감이지만 그 후 우리들은 교육개혁이다 뭐다 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교사는 단지 교탁의 저쪽 편에 있을 뿐 조금도 인간적으로 탁월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폭로해서 교육제도에 회복 불가능한 깊은 상처를 선사(?)하고 말았다.

우리들이 지적한 것은 ‘정말이긴 정말이었지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그것을 자각할 만큼 우리들은 어른이 아니었다.

실제로 나 자신이 교탁의 이쪽에 서게 되고 나서 나는 ‘교육제도’를 지탱하고 있는 ‘빙산의 수면 아래에 묻혀 있는 많은 인류학적 예지를 조금씩 깨닫게 되었다.

내가 깨닫고 가장 놀란 것은 ‘교사는 자신이 모르는 것을 가르칠 수 있고,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시킬 수 있다는’ 출력과잉의 메커니즘이 교육제도의 근간에 있는 것이다.

그것이 교육제도의 계속성을 담보하고 있다.

교사이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만 갖추면 된다. 한 가지 만으로 충분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것은 이러한 모순(이른바 출력과잉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교육제도가 계속될 것이라는 믿음이다.

교사는 자신이 잘 모르는 것을 가르친다. 그런데 어찌된 연유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가르칠 수 있다. 학생들은 교사가 가르치지 않은 것을 배운다. 그것 또한 어찌된 연유인지 모르지만 배울 수 있다. 이 부조리 안에 교육의 기적은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을 알고 ‘감동’하는 것이 교사의 유일한 조건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오랜 시간을 들여서 이 교묘한 제도를 만들어온 선인들의 지혜에 경의를 표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교사로 있기 위한 조건으로는 충분하다.

만약 학생들이 배운 것은 그 어떤 것도 교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의 일부를 이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교사가 있다고 하면 나는 ‘그러한 인간은 교탁에 서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해당하는 사람에게도 확실히 말할 것이다.

그 사람에게에는 ‘교육제도에 대한 경의가 결여 되어 있기’ 때문이다.

교육제도에 경의를 갖지 못하는 자는 교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의 기적이라는 것은 배우는 것이 가르치는 것을 지식에서도 기예에서도 능가하는 것이 일상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 안에 있다. 즉 ‘출력이 입력을 넘어선다는’ 사실 안에 있다.

풍부한 전문지식을 갖고 세련된 교육기술을 구사할 수 있지만 ‘교육의 기적’을 믿지 않는 교사와 지식도 빈곤하고 가르치는 방식도 서툴지만 ‘교육의 기적’을 믿고 있는 교사가 다른 조건을 똑같이 해서 교탁에 섰을 경우 장기적으로는 후자가 압도적으로 높은 교육적 성과를 달성할 것이다. 나의 경험은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다.

물론 단기적·한정적인 교육과제의 경쟁(TOEIC 점수를 한 학기 동안 몇 점 올릴 건지, 공무원 시험을 눈앞에 둔 문제풀이 등)에서는 가르치는 스킬이 뛰어난 교사가 높은 퍼포먼스를

발휘한다.

하지만 ‘교실이라는 곳은 거기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생성되는 기적적인 장이다’라는 신념을 갖지 않는 교사는 장기적으로(학생들이 졸업한 후가 되어도) 그들의 성숙을 지원하는 일은 할 수 없다.

작금의 ‘교육위기’는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교사에게 교과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도 교육기술이 떨어지기 때문도 석·박사학위를 받지 않아서도 그리고 자신의 수업기술 함양을 위해 노력을 안해서도 아니다. 그게 아니라 교사들이 교육을 받는 것을 그만둬 버렸기 때문이다.

교사가 교육을 받는 것을 그만둔다면 도대체 누가 교육을 믿을까?

교사들이 정치가와 미디어와 시장원리를 믿는 보호자들의 요청에 굴복해서 ‘교육이라는 것은 대가에 걸맞은 교육상품·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의 일종이다’라는 교육관을 받아들였을 때 그리고 상품 거래의 어법으로 교육이 말하여지는 것을 수락하였을 때 교육의 기적은 숨이 끊어질 것이다.

‘교탁의 저 쪽’에는 압도적인 지적 우위를 가진 자가 존재한다. 학생들이 내어 놓는 어떤 대가도 교사로부터의 ‘선물’의 가치를 상쇄할 수 없다. 그러한 신뢰만이 우리들을 역견(doxa)의 우리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다.

아이들은 먼저 ‘교탁’을 중간에 두고 ‘이 세계에는 나의 이해를 넘어선 수리적 질서가 존재한다’라는 신뢰를 신체화 하게 된다. 거기서부터 과학적 탐구심과 종교적 각성이 시작된다. 거기서부터 다름 아닌 인간은 인간적인 존재로 성장해 가는 것이다.